

# 조선시대 경기 남동부의 공간적 재현을 통한 지역정체성 규명

## Regional Identity through Geo-spatial Representation of the South-eastern part of Geonggi in Chosun Dynasty

이현군(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상임연구원, leehyungoon@hanmail.net)

### 1. 연구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용인, 여주, 이천, 광주는 조선시대에는 한강 이남의 경기, 현재의 수도권 남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시대에 따라 동일한 지역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연구는 경기 남동부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시대의 특성을 재현하고 이것이 현재 경기 남동부 지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경기 남동부의 지리적 세계를 복원하기 위해 동국여지승람과 광여도, 해동지도,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군현지도 등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파악하였다. 현재의 경기 남동부의 특성과 과거를 결합하여, 현재와 과거의 지역구조의 관련성과 차이점은 현장 답사와 지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 2. 조선시대 경기남동부의 지리적 세계 재현

#### 1) 경기 남동부 고지도의 내용과 표현

연구 대상 지역의 고지도에는 행정(군현, 행궁, 관청(객사), 방면, 동리), 자연(산, 고개, 하천, 호소, 도서, 평야), 경제(장시, 창고), 교통(도로, 역원, 점막, 진도, 포구, 교량), 군사(성곽, 관애), 문화(불우, 능묘, 사묘, 제단, 학교, 누대) 등이 표시되었다.

대동여지도와 달리 군현지도에서는 객사(客舍)가 있는 읍치 중심부를 크게 그렸으며 지도의 방향도 진산(鎭山), 남한강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는 장소를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 2) 지도화를 통한 조선시대 공간의 재현

현재와의 비교를 위해 과거의 지역공간을 지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재의 용인, 이천, 여주, 광

주는 조선시대 용인현, 양지현, 죽산부, 음죽현, 이천부, 광주부, 양근군, 여주목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현재의 용인, 여주, 광주, 이천 지역에 있었던 읍치로는 양지현(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용인현(용인시 구성면 언남면, 마북리), 이천부(이천시 창전동 일대), 광주부(남한산성이 있는 중부면 산성리), 여주목(여주읍의 상리, 하리, 창리 일대), 음죽현(장호원읍 선읍리)였으며, 이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던 죽산부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었다. 이 지역은 읍치를 중심으로 한성부, 경기도의 다른 군현, 강원도, 충청도와 도로로 연결되며, 중간에 역원(驛院), 장시(場市) 등이 존재하였다.

전통 읍치의 경우 입지에 있어 지형적 요소가 고려되는데 동국여지승람에 표시된 이 지역의 진산(鎭山)은 검단산(黔丹山, 광주목, 동쪽 7리) 북성산(北城山, 여주목, 서쪽 7리), 설봉산(雪峰山, 이천도호부, 서쪽 5리), 정수산(定水山, 양지현, 북쪽 2리) 등이며, 용인현, 죽산현, 양근군, 음죽현의 진산은 표시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한강 이남의 경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남한강의 수운을 통해 충청도, 한성부로 연결되며 주요 나루터로는 이포나루(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양화나루(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양화동) 등을 들 수 있다.

### 3. 지역의 변화 과정 탐색

시대적 상황과 지역 변화의 연관성을 밝히는 과정이 본 연구에서는 중요하다. 지역 변화의 결정적 계기, 변화의 시기, 변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이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 행정적 변화, 역사적·문화적 변화, 지역구조의 변화, 시설물·문화 유적지의 형성 연대를 비교하는 연표를 작성하였다.

조선시대와 현재 경기 남동부의 차이성은 시대적 차이(조선왕조의 쇠퇴, 일제시대, 해방이후 한국근현대사 과정), 교통의 변화(수운의 소멸, 철도, 고속도로), 지역 내부 중심지의 이동과 변화, 행정구역의 변화, 산업시설 및 경제 체계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정구역의 측면에서 주된 변화는 1400년대(도별 이속, 부(府)목(牧) 명칭 변경), 19세기말과 20세기 초, 1970-80년대(읍 승격), 1990년대(시 승격)에 있었으며, 역참제(1394, 1597)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로와 수운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로는 수원-이천간 신작로, 이천-강릉간 도로, 수원-이천간 철도 개통, 이천-여주간 철도개통,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42번 국도의 완공, 서울-충주 산업도로 개통, 현대식 교량 및 댐의 건설을 들 수 있다.

### 4. 논의

조선시대 지역형성원리와 현재의 지역 정체성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음의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의 지역 형성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자연적 경계(분수계)와 행정구역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과거의 시대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의 연관관계가 검토되면서 이것이 현재의 경기 남동부 지역구조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